

# 부엌 공간 사용 행태로 본 주거문화의 변화\*

## The Transition of Housing Culture According to User's Behavior in the Kitchen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강순주\*\*

Depart. of Consumer Science and Hous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Kang, Soon-Joo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sidents' behavior in using space, focusing on the kitchen area where there was the most chan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of living culture through the age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1) Today's apartment residents prefer 'Island' style which is located a separate counter and work space. Thus the kitchen area is now being recognized as a place spacious, and where the whole family can participate. 2) The usage of the kitchen is not only limited to cooking or keeping household goods but also broadened to washing, private life, happy home circle, inviting guests etc. Especially, family union or inviting guests in the kitchen is more frequent as the houses become larger, private refreshment or reading in the kitchen is proportional to income and to people living in homes where the kitchen and dining room is divided independent. 3) Looking at the dietary life styles of today's apartment residents, there are more well-being type and tradition type than prosessed type. This trend is proportional to the resident's standard of education and the size of the apartment, thus making a significant influence.

▲주요어(Key Words) : 주거문화(housing culture), 부엌(kitchen), 사용행태(users' behavior), 식생활 문화(dietary life style)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의 주거는 그 사회의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 사회 구성원들의 이념과 가치, 생활과 제도 등 모든 영역의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사회에 소속된 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반영하는 생활문화의 총체적인 산물로서의 주거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최도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핵가족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높은 지가를 감당하기 위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공간에 담겨졌다. 현대주거는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정책, 기술과 경제적 여건, 생산성 등에 의해 고유의 주거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즉,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획일적 문화를 양산해 온 역할을 하여 결국 도시의 경관, 지역의 형상, 집의 모습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틀에 짜여진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도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거공간은 지금까지의 주생활양식의 근대화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마루의 거실화, 안방의 부부침실화, 부엌의 DK화, 작은방의 개실화 등으로 서구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 공간이 과연 전통 주거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변용되어 가고 있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태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주거 문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 문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공간 사용행태 연구

\* 이 논문은 2003년도 태평양 장학 재단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주 저 자 : 강순주 (E-mail : sjkang@konkuk.ac.kr)

가 있다. 공간 사용행태란 여러 가지 주생활 행위가 주거 공간 내에 적절히 배분되어 나타난 결과라 정의할 수 있다(조성희,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문화와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 주거문화의 행동 방식의 공간구조가 전통 주택에서 현대 주택인 아파트로 전환되는 동안 가장 많이 변화한 부엌공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재필(1997)은 전통주택과 현대의 서구식 아파트의 공간 비교를 시각적 접근, 시각적 노출값<sup>1)</sup>으로 계산한 결과 특히 현대 부엌의 경우 전통 부엌에 비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값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옛 한국 사회의 유교적 관습의 변화로 주부의 독자적 영역이었던 부엌이 이제는 가사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남편과 그 외 식구들과의 공유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엌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국민의 생활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현대에 이르기 까지 주택 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다. 20세기 산업화에 따라 우리의 부엌은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에서 밝고 열려있는 현대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조리, 식사, 접객, 단란, 가사 등의 다기능의 주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엌 공간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의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전통주거에서 현대주거로 오면서 부엌 공간기능 및 행태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현대주거에서 부엌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식생활 문화 특성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 관련변인들과의 관련성으로 파악하고 셋째 현대주거에서의 부엌 사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주거문화의 변화를 예측하여 공간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엌공간의 기능 및 사용행태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 2) 아파트 거주자의 부엌공간의 특성과 가족의 가사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 3) 아파트 거주자의 식생활문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 4) 아파트 거주자의 부엌에서의 생활행태를 파악한다.

1) 이 지표의 계산 방법은 Hillier & Hanson(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를 참조바람. 시각적 접근(Visual Access)은 한사람이 주택 내에서 어느 한 위치에 서서 그 주변을 시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말하며, 시각적 노출(Visual Exposure)은 반대로 사람이 주택 내에서 어느 한 위치에 서 있을때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함.

## II. 이론적 고찰

### 1. 전통 부엌의 기능 및 사용행태

전통 주거의 부엌 공간의 기능과 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이영미외1인(1999)). 먼저 자연적 요인으로 4계절의 변화로 인해 계절에 따라 이용할 다양한 수납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부엌 공간 내에서 취사와 난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온돌 난방 구조를 발전시켰다.

인문적 요인으로는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 부엌은 여성의 전용 공간으로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 외부와는 폐쇄된 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평면 배치는 안방과 인접하도록 하며 이는 부엌 내에서의 작업 관리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엌의 경영에 있어서 장점을 갖기도 한다. 더불어, 남녀유별의 윤리관에 의해 신분별, 남녀별, 세대별로 상을 차리므로 식기, 소반 등과 같은 여러 물건을 수납하기 위하여 도장방, 고팡, 다락 등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가 지닌 농경사회라는 생활적 배경으로 인해 곡물이나 채소 및 과실의 관리나 수장을 위한 공간 및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장류를 중심으로 하는 저장음식의 발달을 특성으로 한 조선시대의 식생활 양식에 따라 장독대·광·곳간·고방·도장·찬간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역에 따른 특성이지만 호남지역에서는 특별히 젓곳간이 마련되어 식품의 기호에 따른 저장 공간의 구성도 나타났다. 기본적인 취사의 공간은 부엌 또는 정지였다. 부엌은 흙바닥에 부뚜막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솥이 대·중·소로 설치되어 기본식인 밥과 국이 조리되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에는 '한테부엌'이나 화덕을 놓고 사용하였다. 부엌에는 보통 급·배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취사가 물을 가장 많이 써야하는 작업이면서도 그 사용은 모두 밖에서 이루어 졌다. 문 가까이에 '물두멍'을 놓고 여기에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담아놓고 식수나 설거지물로 사용하였으며 배수시에는 안마당에 설치된 하수구에 버렸다. 특히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은 부엌을 중심으로 부식에 대한 저장공간 및 식품의 갈무리 공간이 매우 발달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식생활의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관념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원과 비가족원인 하인들, 그리고 빈번한 봉제사의 회수와 접빈객은 이러한 음식차림의 빈도와 그 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더욱 식생활이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접빈객이 끊이지 않거나 그 수도 많아 이들을 위한 식사준비에는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또 식품의 소모도 엄청나 평소애 마련해 놓는 일도 아주 중요하였다. 이에 저장공간의 요구도 더 커졌고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선희, 1991).

최윤경(2003)은 14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지어진 조선시대 양반주택에서의 부엌 공간의 위상도를 공간구조론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엌의 위상도는 주택 건립연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였다. 즉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부엌은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동안 여성의 전용 공간으로서의 부

역의 위상이 여성들의 역할 변화와 함께 시간과 노동의 양을 줄이는 실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보면 조선시대 전통 공간의 부엌은 대문과는 멀리 떨어져 여성이 관리하고 작업하는 공간이므로 남성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으로 안채에 위치하면서 가사 작업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나 작업환경은 비위생적이고 낮은 부엌바닥으로 인해 능률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2. 현대 부엌의 기능 및 사용행태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중산층 규모의 아파트 평면을 분석한 최용경(2000)은 1970년대의 아파트 평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엌의 격리라 하였다. 즉 부엌은 1970년에는 거실을 포함한 다른 공간과는 벽으로 구분되어 주부의 노동은 가족들의 일상과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가족 내에서 주부는 식사를 준비, 정리하고 나머지 가족은 격리된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본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이러한 부엌의 격리 현상은 차차 사라지면서 거실과 부엌이 일체화되어 소위 LDK형식이 정착된다고 하였다. 즉, 부엌과 거실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부의 가사작업과 가족생활간의 구분도 역시 모호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엌과 거실의 일체화가 심화되면서 정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녀구분에 대한 인식차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상황 변화의 맥을 같이 하면서 아파트 건설년도와 부엌 위상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많은 반작용과 순작용이 교차하는 현상도 보여 과거 부엌이 가지고 있던 격리된 공간의 이미지를 답습하고 고수하려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욱(1991)은 과거와 달리 부엌이란 단순히 가족구성원이 모여 생활에너지 얻기 위해 식사행위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식생활 패턴을 볼 때,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대화를 하고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의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족 공용 공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엌은 모든 가사노동의 중심지로서 거실과 함께 주거생활을 위한 생활의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과 그들의 식생활 유형, 가족개인의 취향 및 가족의 생활수준에 맞게 부엌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양 식생활 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절대량의 감소와 외식 경향의 증가로 인해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온 부엌 고유의 취사 기능에 다소 변화를 주면서 가족이 간단히 음식을 편리하게 조리하는 부엌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이경희, 2002). 이렇듯 도시화 현상에서 주부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은 조리, 먹고 즐기는 장소 뿐 아니라 세탁 및 집안의 잡다한 일 처리와 더불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어 이제 부엌을 적극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최연진, 2000). 또한 부엌의 입식화가 보편화되면서 시스템화된 부엌기구와 자동화된 취사기구로 인해 가사노동의 절감 효과를 가

져오면서 가사노동의 수행 양식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부엌공간은 가족 공동공간인 동시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며 주부의 휴식 및 여가 활동 공간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박희진 외, 2003).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문화적 측면의 부엌공간의 사용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지위와 역할 변화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근거하였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농경사회에서 오로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음으로 인해 곡물과 기타 농산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온 힘을 쏟았으며 빈번한 봉제사와 접빈객에 대한 음식차림에 바빴지만 오늘날의 여성 지위 및 삶은 고학력, 급속한 사회 진출로 인해 가사를 통해 소비하는 에너지, 시간관리보다는 노동의 단순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가사노동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부엌공간을 여성 개인 영역에서 가족 공용영역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배경 변화이다.

조선시대의 대가족제나 가부장제도 하에서는 부엌이 취사와 난방의 기능 뿐 아니라 잦은 의례행사를 치르기 위한 많은 생활도구의 사용과 접객빈도가 많았으나 오늘날은 가족 구성단위가 소규모화 되고 산업화 되면서 집안의 의례행사도 줄고 오히려 여가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사노동량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인 부엌공간이 됨으로써 가족원간의 가사분담도 일반화 되었다.

셋째, 식생활 문화 및 부엌설비의 변화이다.

조선시대의 식생활문화는 일상적 취사와 전통적 방식에 따라 손이 많이 가는 저장 음식 관리와 함께 일년내내 분주하였고, 부엌 구조 및 설비 또한 비능률적이어서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식생활의 다양화, 가공식품의 증가, 외식증가, 편리하고 능률적인 고기능의 부엌설비 또한 부엌 공간 옆에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을 인접시킴으로 생활, 식생활도 함께 처리하고 가족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격식적인 식사보다는 개식화와 간편한 식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식생활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바쁜 생활 속에 식품의 대량구매 성향으로 이어져 이에 필요한 수납 및 저장 공간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 III. 연구방법

현대 부엌공간에서의 공간 사용행태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엌의 물리적 특성과 가족들의 가사작업 참여 정도, 식생활 문화 요인 특성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및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도구는 기존 연구와 문헌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걸쳐 수정 보완 후, 본조사는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 내의 아파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400부를 실시하였다. 그 중 총 230

부(57%)가 회수되었는데 부실기재 된것을 제외하고 총 219부(54%)를 유효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DMR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는데 식생활문화 요인인 가공추구요인은 .734, 전통추구요인은 .719, 웰빙추구 요인은.675로 나타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

먼저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49.5%, 50대가 32.2%, 30대가 18.3%의 순으로 평균 연령은 46.7세 였으며, 남편의 연령은 50대가 48.1%, 40대가 39.4%, 30대가 12.5%의 순으로 평균연령은 49.4세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학력도 대졸 이상이 84.6%로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높은 편이다. 주부의 취업유무는 전업주부가 68.5%로 많았으며, 취업주부는 31.5%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대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이하가 24.7%, 300만원이하가 23.3%, 200만원대 이하가 18.3%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족수는 4인 가족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3인 이하 가족은 23.1%, 5인 이상 가족은 16.2%이었고,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3.9명이었다. 주거규모는 30평형대가 5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평대 이상이 27.9%, 20평형대는 20.1%으로 나타났다 <표1>.

<표1> 조사대상자의 가구 특성 N=219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주부연령	30대	40(18.3)
	40대	108(49.5)
	50대	70(32.1)
남편연령	30대	27(12.5)
	40대	85(39.4)
	50대	104(48.1)
주부학력	고졸 이하	78(36.3)
	대졸 이상	137(63.7)
남편학력	고졸 이하	35(16.4)
	대졸 이상	179(84.6)
주부의 취업유무	전업주부	150(68.5)
	취업주부	69(31.5)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40(18.3)
	300만원이하	51(23.3)
	400만원이하	54(24.7)
	500만원	74(33.8)
가족수	3인 이하 가족	50(23.1)
	4인 가족	131(60.6)
	5인 이상 가족	35(16.2)
주거규모	20평형	40(20.1)
	30평형	114(52.1)
	40평형 이상	61(27.9)

\*빈도는 결측을 제외한 것임

##### 2. 부역특성과 부역 공간 희망 유형

현재 부역작업대 배치유형은 7자형(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1자형(20.5%), 아일랜드형(6.8%), ㄷ자형(3.7%), 병렬형(1.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희망 부역작업대 배치유형에서는 아일랜드형 49.8%, ㄷ자형 28.8%, 7자형 17.8%, 병렬형 2.7%, 1자형 0.9%의 순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희망하는 부역작업대 배치유형으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아일랜드형과 ㄷ자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부역 공간이 더 이상 벽만 바라보고 일하는 주부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공간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단란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7자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찬일,1995 ; 이경희, 2002)와는 달랐는데, 이는 시대의 빠른 변화속에 가사작업공간에서 주부가 일을 할 때 가족들과 소외된 공간이 아닌,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가사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일랜드형 작업대 배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 지은 선행연구(김진영외 1인, 2003)와는 같은 결과이다 <표 2>.

<표2> 현재/희망 부역 작업대 배치유형 N=219 빈도(%)

부역작업대배치유형	현재유형	희망유형
1자형	45(20.5)%	2(0.9)%
7자형	147(67.1)%	39(17.8)%
ㄷ자형	8(3.7)%	63(28.8)%
병렬형	4(1.8)%	6(2.7)%
아일랜드형	15(6.8)%	109(49.8)%

\*빈도는 결측을 제외한 것임

거실/식당/부역의 공간분할유형은 LDK (일체형), L+D+K 각(독립형), L+DK (거실분리형), LD+K (부역분리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L+DK(51.6%), LDK(37.9%), L+D+K(5.5%), LD+K(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유형 역시 L+DK (거실분리형) 유형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L+D+K(26.9%), LDK(10.0%), LD+K(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분리형 L+DK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수현, 1999)와 같은 결과로서 조사대상 주부들이 거실과 부역공간은 어느 정도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전의 전통주택과 같은 부역만을 분리하는 형은 이제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3>.

<표3> LDK의 공간분할유형 N=219 빈도(%)

LDK의 공간분할 유형	현재 유형	희망 유형
LDK	83(37.9)	22(10.0)
L+D+K	12(5.5)	59(26.9)
L+DK	113(51.6)	117(53.4)
LD+K	11(5.0)	19(8.7)

\*빈도는 결측을 제외한 것임

### 3. 가족의 가사참여정도

가족의 가사작업참여는 부엌 내에서 가사작업분담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사작업을 상차림, 음식재료준비, 조리, 설거지, 식사 후 뒷정리, 냉장고 청소·그릇정리 등의 부엌 청소, 기타의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율을 알아보았다<표4>. 가족구성원은 주부와 주부의 가족(남편과 자녀)으로 나누었으며 각 가족구성원 참여율의 합이 100%가 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조리(91.5%), 부엌청소(91.1%), 재료준비(90.1%) 등은 대부분 주부가 거의 하고 설거지, 식사 뒷정리 및 상차림의 경우만 주부의 가족들이 약 20~25%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어 전통사회에서의 주부만의 부엌공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점차 사라져 가는 듯하다.

<표4> 가족 구성원의 부엌관련 가사작업 평균 참여율  
N=219 %

가사작업 항목	상차림	재료 준비	조리	설거지	식사 뒷정리	부엌 청소
주부	82.3	90.1	91.5	75.2	74.5	91.1
주부 외 가족	17.7	9.9	8.5	24.8	25.5	8.9

### 4. 식생활 문화

#### 1) 식생활 문화 요인

아파트 거주자의 식생활문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활문화 요인을 공통된 요인인자로 묶기 위하여 관련문항 17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인 것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후 총 17문항 중 13문항만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방식(orthogonal rotation) 중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요인 I 「가공추구」, 요인 II 「전통추구」, 요인 III 「웰빙추구」로 명명하였다. 셋 요인의 합은 총 분산의 52.4%를 설명하고 있다<표5>.

「가공추구」요인은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반조립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음식물을 즐겨먹는 식생활 요인으로, 바쁜 현대인이 시간절감과 가사노동 절감을 위해서 생겨난 간편 지향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식사패턴의 또 하나의 변화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로 인해 음식을 만드는 절대량의 감소와 외식 경향의 증가 추세로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온 고유의 부엌기능인 취사기능에 다소 변화를 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경희,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공추구」의 선호정도는 5점척도에서 2.25로 나타나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전통추구」요인은 전통방식과 가족생활 중심을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집에서 중요행사나 모임을 자주 갖고, 손님 등의 접객 행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치나 장류 등을 직접 담궈서 먹는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성희·허영숙(1997)의 전통가족 단란형과 김진영외1인(2004)의 가족단란 전통순응형과 비슷한 성향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요인이 평균 3.24로 나타나 아직도 보편적인 식생활문화임을 알 수 있다.

「웰빙추구」요인은 최근에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식품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 코드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요인으로 이 역시 식생활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건강을 추구하는 식생활로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 식품을 먹고,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다면 사서 먹는다. 본 조사에서는 이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로 (3.55) 나타나 최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식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대의 식생활 문화 요인은 가족의 건강을 고려해 모든 가족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전통형과 웰빙형, 시간 절감을 위한 가공추구형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아파트 거주자의 식생활문화 요인 N=219

항목	요인	가공 추구	전통 추구	웰빙 추구	h <sup>2</sup>
1.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자주 사서 먹는다.		.729			.612
2.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		.774			.630
3. 반찬거리를 살 때 어느 정도 손질이 되어있는 것을 사서 집에서는 요리만 한다.		.600			.374
4.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만들어진 반찬을 사서 먹는 편이다.		.675			.587
5. 시간절감을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국, 샐러드, 주 등을 주문해서 먹는 편이다.		.575			.386
6. 집에서 가족들의 생일이나 중요한 행사 모임을 치른다.			.747		.561
7. 손님을 초대할 때 다소 힘들더라도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한다.			.715		.562
8. 재래식 생활습관에 젖어있어 몸에 좋다면 다소 힘들더라도 될 수 있다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577		.492
9.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담궈 먹는다.			.553		.372
10. 김치는 집에서 담궈 먹는 편이다.			.666		.481
11. 건강에 좋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식품을 사거나 먹는 편이다.				.837	.637
12.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주로 사서 먹는다.				.784	.713
13. 육류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 및 채소를 즐겨 먹는다.				.619	.400
평균		2.254	3.242	3.550	
고유치		2.535	2.371	1.901	
전체변량		19.499	18.236	14.621	
누적변량		19.499	37.735	52.356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문화 요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문화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MR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 가족수, 주부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공 추구」요인은 주부연령이 30,40대인 경우가 50대이상보다 더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젊은 주부일수록 편리함과 간편함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통추구」요인은 가족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의 가족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전통방식의 식생활을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변화나 유행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지속하려 하고 전통적인 사고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웰빙추구」요인은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이 높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표6>.

<표6> 관련변인에 따른 식생활문화요인 차이 N=219

변인	구분	가공 추구			전통 추구			웰빙 추구		
		평균	D	F	평균	D	F	평균	D	F
월 소득	~200만원	11.29			15.82			9.6	a	6.08***
	~300만원	11.22		.25	16.79		.51	10.20	a	
	~400만원	11.59			15.81			11.22	b	
	500만원~	11.04			16.34			11.11	b	
가족 수	~3인	12.00	a		1.88	15.41		a	7.10***	
	~4인	11.49	b	15.73		a				
	5인~	10.44	b	18.73		b				
주부 연령	30대	2.29	ab	4.13*	3.05		1.09	3.78	.67	
	40대	2.37	b		3.30			3.65		
	50대	2.07	a		3.26			3.64		

p<.01\*\*, p<.001\*\*\*

5. 부엌 공간에서의 생활 행태

부엌공간에서의 생활행태를 현재 하는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으로 나누었고, 이를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면 "1", 안하고 있으면 "0"으로 점수화하였다. 또한 생활행태를 접대·가족단란·개인생활·가사작업·보관·취사관련 행위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주부들이 현재 대부분 부엌공간에서 접대·가족단란·개인생활·세탁작업·보관·취사관련의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취사 및 보관 관련 행위의 빈도가 대체

적으로 높으나 간단한 다과의 손님 접대(74.8%), 식사초대의 손님접대(52.5%)의 접대 행위 비율과 가족 단란(52.1%)의 행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엌 공간의 사회화의 변화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 반면 세탁 관련 행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조사 대상 아파트 부엌의 물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하겠다., 한편 현재보다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행위 비율이 높은 것은 컴퓨터 작업, 휴식, TV시청 등의 「개인생활 행위」와 가족회이나 모임등의 「가족단란행위」, 세탁물 건조와 다림질 및 빨래 개기등의 「세탁관련행위」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거주자들은 부엌에서 보관, 취사관련행위 뿐 아니라 가족 단란 및 개인의 컴퓨터 작업 및 휴식하는 행위는 물론 세탁 건조 및 다림질 관련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다용도의 넓은 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표7> 부엌공간에서의 생활행태 N=219 빈도(%)

행위	실(室)	부엌 공간	
		현재하고 있는 행위	희망하는 행위
접대	1. 손님접대(식사초대)	115(52.5)	45(20.5)
	2. 손님접대(간단한 다과)	164(74.8)	16(11.9)
가족 단란	3. 가족단란	114(52.1)	41(18.7)
	4. 가족회의 및 모임	33(15.1)	61(27.9)
개인 생활	5. 휴식	52(23.7)	67(30.6)
	6. TV 시청	51(23.3)	67(30.6)
	7. 컴퓨터작업(인터넷 등)	20(9.1)	81(37.0)
	8. 독서공부	58(26.5)	51(23.3)
세탁 관련	9. 세탁	60(27.4)	57(26.0)
	10. 세탁물 건조	38(17.4)	68(31.1)
	11. 다림질 및 빨래개기	39(17.8)	70(32.0)
	12. 허드렛일(운동화세탁, 걸레빨기 등)	51(23.3)	41(18.7)
보관	13. 김치보관	170(77.6)	23(10.5)
	14. 고추장, 간장, 된장, 보관	144(65.8)	31(14.2)
	15. 쌀보관	135(61.6)	33(15.1)
	16. 세계, 휴지보관	68(31.1)	43(19.6)
	17. 부엌관련 큰그릇 및 냄비류 보관(찜통, 다라이 등)	129(58.9)	36(16.4)
취사 관련	18. 김치 담그기	153(69.9)	12(5.5)
	20. 생선, 야채 담그기	187(45.7)	8(3.7)
	20. 곰국, 간장 달이기	158(72.1)	18(8.2)
	21. 계절채소 및 생선 말리기	41(18.7)	18(8.2)

V. 결론

본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주거공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변화한 부엌 공간을 중

심으로 문헌 및 실증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부엌공간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영향으로 여성만이 관련된 중요한 공간으로 남성은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었으며 안채에 위치하면서 가사작업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이었다. 반면 농경사회라는 생활배경으로 많은 수장공간이 있었으며 접객 및 조상의 사후봉제사 등의 의례가 많아 부엌의 크기도 넓고 그릇과 곡식 등의 저장 공간이 부수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부엌은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부엌의 위상이 여성들의 역할 변화와 함께 시간과 노동의 양을 줄인 실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면서 변화되었다.

둘째, 현대 부엌공간은 아파트가 일반화된 1970년 이후부터 살펴 본 결과, 1970년대는 부엌이 거실 등의 타 공유공간과는 벽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사실상 부엌이 입식화 되면서 능률화 되었다 뿐이지 전통주택에서 주부만의 작업공간이라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부엌의 격리현상이 사라지면서 거실과 부엌이 일체화 되는 소위 LDK형식이 선보이고 부엌이 주부만의 공간에서 가족 모두에게 열린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남녀구분 인식 차이 등의 변화와 함께 부엌과 거실의 일체화가 정착되면서 부엌의 위상도 높아졌다. 본 실증 연구 결과에서도 부엌은 여전히 주부가 중심이 되어 가사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가사 작업 참여 정도도 20~25% 정도로 나타나 이제 부엌이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주부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지위와 역할 변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원의 가사 분담의 일반화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실증조사 결과 현재의 아파트 부엌평면도 L+DK형, LDK형의 순으로 나타나 이미 부엌의 위치는 식당이나 거실과는 오픈되어 있는 유형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향후 거주자들이 원하는 유형도 L+DK형, L+D+K형의 순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엌 배치 유형에서도 현재는 ㄱ자형이 가장 많았으나 희망하는 유형으로는 아일랜드형, ㄷ자형의 순으로 나타나 부엌공간을 넓고 가족모두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셋째, 오늘날 아파트 거주자의 식생활 문화는 현대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간편하고 편리한 가공 추구보다는 건강을 생각하고 김치나 장류 등을 담겨 먹기도 하는 웰빙 추구나 전통 추구형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웰빙추구는 월소득이 많은 집단에서, 전통추구는 가족수가 5인 이상의 집단에서, 가공추구는 30.40대의 연령층 주부에게 많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변화되어 식생활 문화의 다양화를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부엌에서의 생활행태는 취사관련이나 물건보관 못지않게 세탁 관련행위, 개인생활, 가족 단란, 접객에 이르기까지 다

용도 기능이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가족 단란 및 개인 생활, 세탁관련 행위등은 앞으로도 계속 희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아파트의 부엌공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여성만의 폐쇄적 공간은 아니며 시대적 흐름과 함께 주거공간내의 중심적인 위치로 변모하면서 이에 대한 거주자들의 행위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부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요리하고 먹고 저장하고 수납하는 행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아일랜드형 부엌에 대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의 요구가 높았으며 아일랜드 유형이 가족들의 단란을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임을 감안할 때 향후 바쁜 일상 속에서 현대적 설비가 갖춰진 편리하고 열린 부엌공간은 이제 가족 커뮤니티 한부분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주택유형도 다양화 시키고 지역별 사용행태도 조사하여 부엌공간에 대한 주거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일 : 2005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1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4월 14일

#### 【참 고 문 헌】

- 김수진(1999).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안방, 거실, 부엌/식당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규 등(2002). **일상과 비일상적 주생활에 따른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2), 111-118.**
- 김진영, 강순주(2004). **아파트 주부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12), 53-60.**
- 최재필 등(1997). **주거론-우리 근대주거의 변화.** 기문당.
- 박찬일(1994). **아파트 가사작업공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김묘정(2003). **아파트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1-108.**
- 백지원(2000). **도시적 주생활 실태에 따른 아파트 주거공간 계획에 관한연구 - 대도시 3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2). **공동주택 거주자의 부엌공간에 관한 의식 및 행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천득염(1999). 한국 전통주거의 부엌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8), 109-118.
- 윤복자 등(1998). 서울시 거주자의 부엌기기 보유현황 및 수요에 측. 한국주거학회논문집, 9(1), 87-97.
- 정혜원(2000).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 유형과 공간 대응 관계 고찰을 통한 새로운 평면형식의 제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1987).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현숙(2002).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2003).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 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81-88.
- 최현진(2000). 거주자의 식생활 유형에 따른 공간계획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영(2002). 가사행태를 통해 본 아파트 가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중수(1990). 개항이후 한국 재래 부엌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